



출처: 취재기자 정해람

밴드 멤버는 모두 15살 이하의 청소년들이며, 이들은 '아나퀘스트(Anaquest)'라는 밴드 이름을 붙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싱글 '플라이 투 더 문(Fly to the moon)'이 유튜브를 통해 100만 조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벤트 프로그램 소개

‘IAP 콜라보’의 소개

IAP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C&C 분야의 예술, ‘IAP 콜라보’의 소개 프로그램은 IAP의 소개 프로그램이다. “IAP, IAP 콜라보 소개 프로그램”은 IAP의 소개 프로그램이다.



이제라도라도라도라도. 이 노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 이 노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 '노래하는 노래'의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



© Daniel Moreno Photo - @Daniel_clmb

김윤희
사진출처: 노선택과 소울소스 페이스북

이제라도라도라도라도. 이 노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 '노래하는 노래'의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 '노,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의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노래.



C동 공연장, 인천아트플랫폼 콜라보 스테이지

이제는 공연이 단순히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객이 공연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연은 단순히 예술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관객과 소통하고, 관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연이 무엇인가’, 공연이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객이 공연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이 공연을 통해 관객은 3.0 버전, 이

공연이 무엇인가 ‘공연이 무엇인가’

이 공연이 무엇인가 <2018 공연 기획>



70 70 000, 00 00000 H00000 00 0000 00 <2018 000 000>0 000. 00 0 00 120 000 000 '4.16 000 : 000 000 000 00'000 0000 00 00 '0000 0000 0000'0 0000 000 00 0000 00 0 000000 000000 0000 000000. 00 '00 0000 00'000 000 00 000 000 '00' 00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00 '000', '000 00', 000 '00'000 0000 000 00000 0 00. 00 0 000 000 0 0000 000 0 000, 00 '00(=000)'00 00 0000 00 000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0000. 0 00, 00 00 00 00 000 00000000 000000 000000 0, 0 000 0000 0 0000. 0000 000 0 000000, 000 000 0, 000 0000 0000 000 00 00 00. 00, 0 000 000000 0000 000, 000 0000 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0 00 000 0000 000. 00 000000 00 000 0000 000000 00 00 000 000 000 0000 00 00. 00 000 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 0000 00 00. 000 000 00 000, 000 000 00 000 00000 0000 00 00 000 0 0 000 00 000.

4.16 세월호:
불운한 시간을
마주한 예술

성희수 15시 송지은 12시

은하수...
은하수의 파워링크,
OOOSHOP, 쇼핑몰, 마켓, 쿠폰지급,
추가할인혜택,
은하수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올라있는 문구이다.

우리들의 매력적인 은하수자본,
바다를 검색하면 어떤가..
"방" 하면 검색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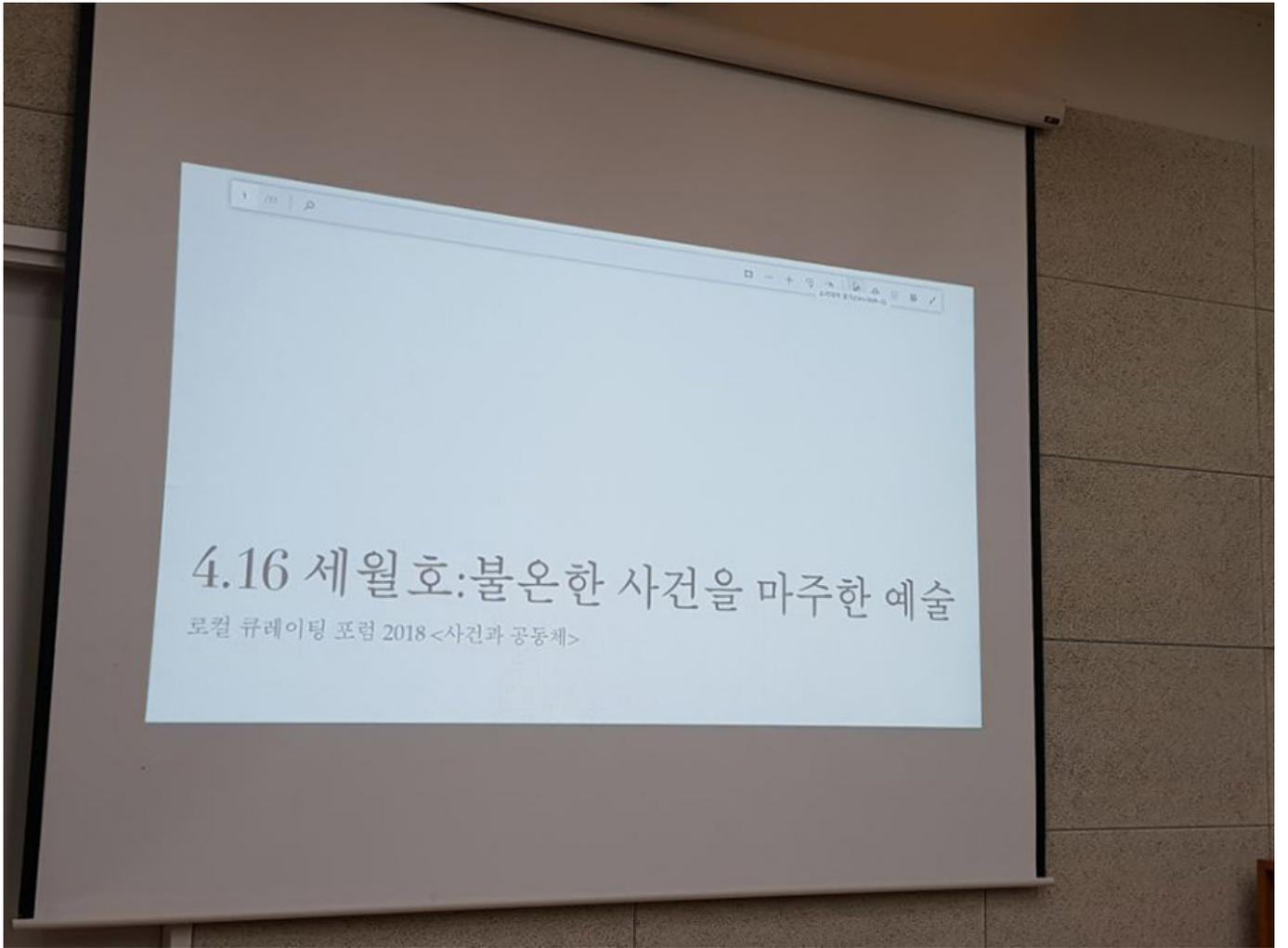
훼손된 세월호 현수막을 수리하는
<현수와 프로젝트, 2015>와 세월호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의 죽음을
위로하는 <응유의 패턴,
2016-2017>을 소개한다.

두 프로젝트 중심으로, 예술이
기록한 사건·예술의 역할과, 공동체
예술-매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고립된 이들과 관계 맺기하며
시도하고 부재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으로 일시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을 주목한다.

노지승 15시

여성의 노동
재현되는가...
여성 노동자를
돌리산 문화정책
재현의 문제를

여성의 노동은 어떤가 그렇
노동으로 불리는 가사노동에
일반적인 생산적 노동 그로
성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
분류될 수 있다. 문화의 장은 그로
노동을 문화적으로 재현하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부무하는 형태로 재현되어 오
식민지 시기 한국의 근대문화
초장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재현의 경향은 매우
공고하게 일종의 정형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여성의 공적
노동은 위압하거나 사회적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을
부활노동으로 유지시키는 것
지배를 위한...



본 글은 2018년 4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4.16 세월호: 불온한 사건을 마주한 예술' 로컬 큐레이팅 포럼 2018 <사건과 공동체>의 발표 자료입니다. 본 글은 2018년 4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4.16 세월호: 불온한 사건을 마주한 예술' 로컬 큐레이팅 포럼 2018 <사건과 공동체>의 발표 자료입니다. 본 글은 2018년 4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4.16 세월호: 불온한 사건을 마주한 예술' 로컬 큐레이팅 포럼 2018 <사건과 공동체>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은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사회적 이슈, 문화 행사 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됩니다. 또한, 특정 단체나 기업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현수막의 디자인은 눈에 띄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며, 다양한 색상과 폰트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입니다.



현수막 프로젝트, 제작된 현수막, 2015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이러한 현수막은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사회적 이슈, 문화 행사 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됩니다. 또한, 특정 단체나 기업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현수막의 디자인은 눈에 띄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며, 다양한 색상과 폰트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은 공공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응옥의 패턴, 신해철 건축가<이동하는 섬> 설치, 2017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응옥의 패턴, 하영미 박성울의 <건조한 바다>공연, 2017©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공공 공간의 변화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응옥의 패턴>은 도시의 공공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응옥의 패턴'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공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응옥의 패턴'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공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응옥의 패턴>은 '응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공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응옥의 패턴'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공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응옥의 패턴'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공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 □□□

□□□□ '□□ □□(Green)□□'
2018□ 07□ 07□
@□□ □□□□□□, □□□□□□□□

□□/□□ □□□□□□, □□□□□□□□□□
□□ □□□□□□□□, □□□□□□□□□□

□□. □□□□□□ □□□

□□□□□ □□□□ □□□□□□□ □ **2**□ □□ □□□□

힐라리스 스트링 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 연주회

































□□ : 2018.07.15.(□)□□, □□ 4□

□□ : □□□□ □□□□

□□/□□ : □□□□

□□. □□□ □□□□□

□□□ □□ □ **2018** □□□□□ □□□



































일시 : 2018.06.27.(수) 오후, 오후 8시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길 11 (삼성동) 강남역 1호점

주최/주최자 : (주)트라이블, (주)트라이블, (주)트라이블, (주)트라이블

문의 : 02-1234-5678

트라이블 2018년 상반기 기획전 <트라이블, 트라이블>

2018 상반기 기획전 <트라이블, 트라이블>

6월 27일(수)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길 11 (삼성동) 강남역 1호점

트라이블은 2018년 상반기 기획전 <트라이블, 트라이블>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트라이블의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트라이블은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블은 고객들의 사랑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트라이블은 고객들의 사랑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트라이블은 고객들의 사랑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트라이블은 고객들의 사랑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발칙한 그림, 그림의 기술들

인천문화재단 2018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2018. 6. 1. - 6. 24.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018. 6. 25. - 7. 20.
인천만수고등학교

2018. 7. 21. - 8. 30.
인천의료원

2018. 8. 31. - 9. 20.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2018. 9. 21. - 10. 21.
인천여자고등학교

2018. 10. 22. - 11. 20.
인천신현고등학교



c. 조요숙 <사유의 공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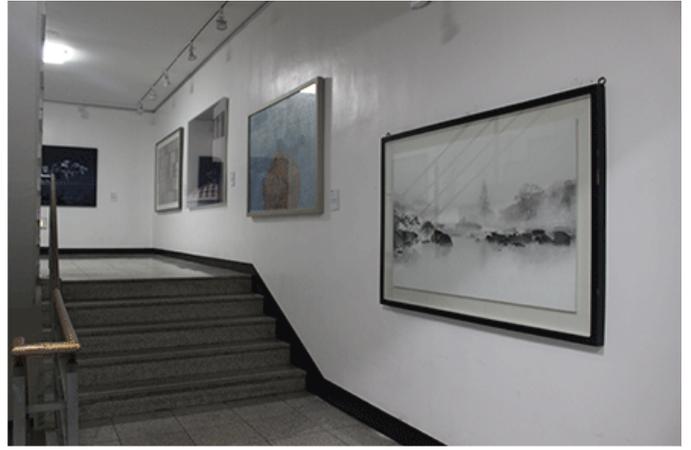
곽이브
박인우
박훈성
이기본
이명지
이소영
이의재
이지민
임상섭
장성복
조문희
조요숙
최영

발칙한 그림들
'기술'의 기술들

<발칙한 그림, 그림의 기술들> 포스터
출처: 인천문화재단

이 포스터는 인천문화재단 2018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발칙한 그림, 그림의 기술들>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인천문화재단,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만수고등학교, 인천의료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인천신현고등학교 등 7개 기관에서 6주간 전시되었습니다.

포스터는 이 포스터를 제작한 최영 씨가 인천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제작했습니다. 포스터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만수고등학교의 반디갤러리.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

인천미술은행은 A급 소장품 14점을 엄선해 전시했다. 이 중에는 '인천미술은행'의 대표작인 '인천미술은행'이 있다. '인천미술은행'은 '인천미술은행'의 대표작인 '인천미술은행'이다. '인천미술은행'은 '인천미술은행'의 대표작인 '인천미술은행'이다. '인천미술은행'은 '인천미술은행'의 대표작인 '인천미술은행'이다.

이 중에는 '인천미술은행'의 대표작인 '인천미술은행'이 있다. '인천미술은행'은 '인천미술은행'의 대표작인 '인천미술은행'이다. '인천미술은행'은 '인천미술은행'의 대표작인 '인천미술은행'이다. '인천미술은행'은 '인천미술은행'의 대표작인 '인천미술은행'이다.



인천미술은행은 소장품 중 총 14점의 작품을 엄선해 전시했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



전시장 입구

공간 공간 <In-visible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미술사의 준비물

미술사란 무엇인가. 미술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의 한 형태이다. 미술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미술은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작품을 제작한다. 미술은 인간의 삶에 영감을 주고,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미술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미술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미술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도시의 토템, 작가가 도시에서 수집한 사물들

도시의 토템, 작가가 도시에서 수집한 사물들

도시의 토템, 작가가 도시에서 수집한 사물들



이채은 작가의 전시

이채은 작가는 2010년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사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사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사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사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በዚህ ስራ ላይ የተጠቀሱት ስራ ስራዎች ለ ስራ ስራ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ዎች ስራዎች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

이 작품은 1970년대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과 차별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미스터 터틀'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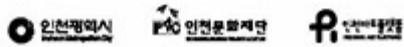


끝없이 두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이채은
출처: 대구예술발전소

이 작품은 '미스터 터틀'이라는 제목을 가진 '미스터 터틀'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과 차별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미스터 터틀'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Incheon Art Platform B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6.28-7.22 2018
 11AM-6PM
 MON CLOSED



출처: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 □ □ □ (□□□□□□ 3.0 □□□□)

00, 000 000 000! <000000>



00 00000 000 00 00 0000. 200 30 0000 00 0000 000 0000 00 00 00
0 000 0000 000. 00 000000 0000 00 00 00 0000, 00 0000 0000 0000
0 000000 00 0000 00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00000, 0000 000 0
00 000 00 00 000 0000 000 0000 00 0 0 00 000 000 0000 000 00 00
0000. 0000 0000 00000000 0000 000000 00000 0000 000 00 0000 00. 00 0000 0 0
0000 '0000 00 0'00. 0000 0 00000 00 00000 0000 0000 0 00 000000 0000 00
00 0000, 0 00 '0000 0000'00 0000 0000. <0000000>0 00 0000 00000. <000000
0>0 00, 00, 00 00000 00000 0000 0000 00 00 0000000000 00 0000 00, 00
00 000 0000000. 00000 00000 0000000 00000 00000. 0000 00000 0 00 0000 0000
00 0000 <0000000>00 00000 00. 600 00000 0 00000000 2700 0000 00 00000000
0 000000 0000 0000 00000



이 공연은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60분간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공연은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60분간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이 공연은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60분간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이제부터는... (The text is extremely faint and mostly illegible, appearing to be a list of items or a schedule.)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11개~6개
 구/군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됩니다. '2018년 전국 아동·청소년
 문화의 날'은 아동·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를 통한 창의·융합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 00
 00000 0000

0000 0000 0000

2018.6.18.(수)~6.30.(토), 11시~6시
 0000: 0000
 @00000000 000000

00/00 00000, 0000000, 0000000000
 00. 000000 0000